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와 보고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 경제]

- Bloomberg: 9월 미 무역적자 확대... 외국산 상품 수요 견고
- Bloomberg: 연준 관리들, “인플레이 둔화 계속 필요하다”

[미국 금융]

- WSJ: 은행들 대출 기준 강화
- Bloomberg: 미 부채 이자 비용 연간 1조 달러 상회

[주택]

- YahooFinance: 골드만삭스, 당초보다 주택가격과 모기지율 상향 조정

[원자재]

- Bloomberg: 유가 80불 아래로 떨어지다
- Bloomberg: 러시아 원유 출하량, 4개월 만에 최고치 경신
- Bloomberg: 경제 둔화로 유럽 철강 업체 활동 위축
- WSJ: 사우디 아람코, 유가와 수출량 감소로 이익 하락

[전기차]

- WSJ: 전기차 기업들, 수요 감소 대응 위해 할인에 나서다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 WSJ: 위워크, 결국 파산 신청하다
- Bloomberg: 우버, 수익은 증가했지만 매출성장은 둔화되다

[보고서]

-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2023.11월)
-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 금융 시장정보

[미국 경제]

Bloomberg: US Trade Deficit Widens by More Than Forecast on Goods Demand

9월 미 무역적자 확대... 외국산 상품 수요 견고

- 9월의 미국 무역 적자가 예상보다 커졌다. 외국산 상품에 대한 미국인들의 강한 수요가 적자폭을 키웠다.
- 제품과 서비스 적자가 8월에 비해 4.9% 늘어난 6백15억달러로 나타났다고 연방 상무부는 오늘 화요일 밝혔다.
- 수입액은 올해 2월 이래 최고치를 보였으며 수출액은 1년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 미국의 견고한 고용과 낮은 실업률 덕분에 미국인들의 셀폰, 자동차 등 외국산 제품 수요가 견고했다. 그러나 올해 마지막 3개월 동안 국내외에 점차 역풍이 커지고 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Fed Officials Pledge to Watch Data, Focus on Cooling Inflation**연준 관리들, “인플레 둔화 계속 필요하다”**

- 2명의 연준 관리들은 연준 인플레 목표인 2%로 인플레를 충분히 끌어내리는 것이 그들의 관심사라고 강조했다. 경제와 노동시장에 강세를 보이는 상황에서 이같은 발언이 나왔다.
- 시카고 중앙은행 총재인Austan Goolsbe는 “인플레 하락이 가장 중요하고 현재로서는 경제와 일자리 성장이 핵심 초점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회의에서 연준이 향후 금리 인상(차입 비용 상승) 필요 여부를 미리 확정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 미내아폴리스의 연방중앙은행 총재인Neel Kashkari는 연준의 인플레이션 싸움을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나와 동료들은 물가를 합리적인 가안내에 둔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loomberg 기사

[미국 금융]**WSJ: Banks Tighten Lending Standards****은행들 대출 기준 강화**

- 미 은행 대출 담당자들은 연준의 설문조사에서 은행들이 기준을 강화하고 있고 지난 3개월 동안 비즈니스 용자 수요가 감소했다고 답했다.
- 연준의 용자담당자 의결 설문 조사 발표에 따르면 또한 미 가구의 거주 주택, 신용카드, 자동차, 기타 소비자 대출에 대한 수요가 줄어 들었다.
- 전문가들은 이 보고서에 대한 논평과 관련, “은행이 대출 고삐를 조이고 있고, 신용 조건이 경제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관련 질문은 긴축 여건이 언제 GDP 성장을 제한 시킬 것인가 라는 것이다”고 말했다.

WSJ 기사

Bloomberg: US Debt Interest Bill Rockets Past a Cool \$1 Trillion a Year**미 부채 이자 비용 연간 1조 달러 상회**

- 블룸버그 분석에 따르면 연방정부의 부채 연간 이자 지급액이 지난달 말 1조 달러를 넘어선 것으로 추정된다.
- 이 금액은 지난 19개월 동안 두배 증가했으며 2022년 전체 연방 회계 연도의 15.9%에 해당된다.

- 이에 따라 앞으로 국채 경매와 국채 발행이 더 늘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 한편 이 이자 비용 수치는 연방정부의 월간 미결제 부채 잔고와 그 평균 이자를 보여주는 미 재무 데이터를 이용해 계산한 것이다.

Bloomberg 기사

[주택]

YahooFinance: Goldman Sachs expects home prices and mortgage rates to come in higher than originally forecasted

골드만삭스, 당초보다 주택가격과 모기지율 상향 조정

- 골드만삭스의 주택 전망팀은 올해 주택가격이 계절 조정기준으로 2%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당초 전망치 1.8% 상승에서 상향 조정된 수치다.
- 모기지 금리는 30년 모기지율의 경우 당초 예상치 7.1%에서 7.6%로 상향 조정했다.
- 한마디로 탄력적인 주택 가격과 제한적인 금리 인하로 인해 주택 구입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YahooFinance 기사

[원자재]

Bloomberg: Oil Slips Below \$80 as Fed Rate Worries Cloud Market Outlook

유가 80불 아래로 떨어지다

- 중국 무역 지표 부진과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수요 전망을 어둡게 하면서 약 2달이 넘는 기간에 처음으로 유가가 배럴당 8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 텍사스 중질유(West Texas Intermediate)는 2.46%까지 하락했다.
- 연준 관계자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승리를 언급하기엔 너무 이르다고 말한 뒤, 금융시장이 하락하고 달러가 강세를 보였다. 달러가 상승하면서 미국 통화로 가격이 책정되는 원유 수요가 감소한 것이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Russia's Crude Shipments Are Running Close to a Four-Month High

러시아 원유 출하량, 4개월 만에 최고치 경신

- 러시아가 자국의 항구를 통해 4개월여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원유를 선적하고 있다.
- 블룸버그 추적한 데이터에 따르면, 11월 5일까지 4주 동안 하루당 3백48만 배럴의 원유가 수출됐다. 이는 10월 29일까지의 수출량에 비해 증가한 것이다.
- 지난주의 원유 수출량의 대부분은 11월의 높은 수출관세를 적용받았으나, 러시아의 원유 수출 수입에는 큰 영향을 주지 못했다.

Bloomberg 기사

Bloomberg: Europe's Steelmakers Feel Sting of the Economy's Downturn 경제 둔화로 유럽 철강 업체 활동 위축

- 유럽 경제 둔화가 철강 기업들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들 기업들은 시설들을 가동시키지 못하고 있고 직원들은 해고 했다.
- 철강 산업은 경제 성장의 바로미터. 그런데 유럽 지역의 경제가 둔화되면서 철강 수요가 슬럼프를 겪고 있다.
- 제조업체와 건설업체는 유럽중앙은행의 긴축 통화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제철소들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모건 스탠리의 추정에 따르면 벤치마크 가격은 원자재 비용보다 더 빨리 하락하여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과 영국의 생산 능력의 약 7%가 오프라인 상태에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아시아산 수입품과의 경쟁이 심하고 이번 경기 침체는 지난 경기 침체 직후에 곧바로 이어진 것이 특징이다.

Bloomberg 기사

WSJ: Saudi Aramco Profit Falls on Lower Oil Prices, Volumes 사우디 아람코, 유가와 수출량 감소로 이익 하락

- 사우디아라비아의 국영 석유 회사 아람코가 원유 가격과 판매량 감소로 인해 분기 수익이 감소했지만, 주주들에 대한 배당금은 이전 분기 수준과 같을 것이라고 보고했다.
- 이 기업은 오늘 화요일 지난 9월까지 3개월간 순이익이 3백25억8천만 달러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치솟았던 때의 4백24억3천만 달러에 비하면 하락한 것이다.
- 사우디아라비아는 지난주에 유가 상승을 위해 올해 말까지 하루당 1백만 배럴의 감산을 연장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근에 유가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분쟁이 확산하고, 원유 공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변동했지만, 경제 기대 약화와 원유 수요에 대한 걱정이 커지면서 현재 유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WSJ 기사

[전기차]

WSJ: EV Makers Turn to Discounts to Combat Waning Demand 전기차 기업들, 수요 감소 대응 위해 할인에 나서다

- 전기차 모델의 판매 성장률이 둔화하면서, 자동차 기업들과 대리점들이 미 판매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가격을 인하하고 할인을 확대하고 있다.
- 현대와 포드 등 일부 자동차 기업들은 이번 달에 일부 모델에 대해 최대 7천5백 달러의 현금환급을 제공하고 있다. 그 외 다른 기업들은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더 저렴한 월 지불액이나 더 짧은 리스 기간을 제공하고 있다.
- 자동차 기업 경영진들과 대리점들은 프리미엄 전기차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을 이끌기 위해 할인이나 가격 인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 할인은 자동차 기업들이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거나 비인기 모델을 판매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지만 이는 기업들의 이익을 감소시키고 해당 차량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구매자들의 이익을 해칠 수 있다.

WSJ 기사

[비즈니스와 기업동향]

WSJ: WeWork, Once Valued at \$47 Billion, Files for Bankruptcy 위워크, 결국 파산 신청하다

- 한때 미국에서 가장 가치 있는 스타트업으로 주목 받았던 오피스 공간 벤처기업 WeWork가 파산 신청을 했다.
- 이 회사는 어제 월요일 밤, 뉴저지 파산 법원에서 챕터 11 보호(chapter 11 protection) 신청을 했으며, 현재는 실적이 저조한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임대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원의 승인을 구하는 중이다.
- WeWork의 최고 경영자인 David Tolley는 이 기업의 대출기관 90%가 WeWork의 부채를 자본으로 전환하는데 동의했기 때문에 대략 30억 달러의 부채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말했다.
- 오늘 화요일에 WeWork 기업 관계자는 소프트뱅크가 보유한 WeWork 주식을 제외한 대부분의 현존하는 주식은 개편 계획의 일부로 인해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 말했다.

WSJ 기사

Uber Delivers Mixed Report as Profit Grows, Revenue Slows

우버, 수익은 증가했지만 매출성장은 둔화되다

- 우버가 9월까지 3개월 동안 3억9천4백만 달러의 영업 이익과 25%의 전체 성장률을 기록했다.
- 같은 기간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한 93억 달러를 기록했다지만, 이는 분석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수치이며 10분기 만에 가장 느린 성장 속도이다.
- 우버의 차량 공유 사업은 지난 3분기에 운전자 공급이 개선되고 출장 운행 증가에 힘입어 분석가들의 예상보다 빠르게 확장됐다.
- 그러나, 배송 사업 부문의 성장은 18% 성장에 그쳐 부진했으며, 화물 사업의 경우 지난 분기 중 예약 건수가 27%가 감소하는 등 계속 어려움을 겪고 있다.
- 우버는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나 조정된 EBITDA에는 경제적인 변화가 없었다고 밝혔다.
- 우버의 CEO인 Dara Khosrowshahi는 이번 실적에 대해 우버가 계속해서 대규모의 수익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자사가 거시적 환경에 영향을 받지 않고 계속 성장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며,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Bloomberg 기사

[보고서]

한국은행 뉴욕사무소: 최근의 미국경제 상황과 평가(2023.11월)

BOKNY 원문

신한은행 아메리카: 일일금융시장정보 (Shinhan Society Daily Letter)

美연준 매파 위원, "인플레이션 상대 승리선언 아직 일러"

"기준금리 인상 끝났다고 확신 못해"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는 최근 물가 압력이 완화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지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에 대해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아직 이르다고 말했다.

연방준비은행(Fed·연준) 인사 가운데 매파(통화 긴축 선호)로 분류되는 카시카리 총재는 6일(현지시간)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우리가 '완전히 끝났다. 문제를 해결했다'고 선언하기에 앞서 더 많은 지표를 확보하고 경제 진행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카시카리는 지난 3개월간 인플레이션과 관련해 희망적인 지표들이 나왔지만,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면서 "인플레이션이라는 지니를 다시 병 속에 넣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더 많은 지표가 제공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 위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신한 일일금융시장정보 원문

KOCHAM | 460 Park Ave, New York, NY 10022

[Unsubscribe office@kocham.org](mailto:office@kocham.org)

[Constant Contact Data Notice](#)

Sent by office@kocham.org